

지역 유통계 '지속가능한 ESG경영' 실천 앞장선다

광주신세계, 종이 사용 줄이고 친환경 브랜드 적극 유치 롯데백화점, 업계 최초 '고객참여형 캠페인' 도입 성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발생해 평년보다 훨씬 춥거나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환경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지구와 인간의 상생을 위한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개인, 단체, 기업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 유통계는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먼저 ㈜광주신세계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캠페인과 예코 패키지를 통해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기존에 발간되던 종이 홍보물을 디지털로 대체하고 2015년부터는 앱(APP)을 통해 전자 영수증을 받아 볼 수 있게 했다. 사무실 내 복사 용지 50% 줄이기 등의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부터 종이 사용량 감소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점포의 폐지를 자체 수집해 폐지 함유율 100% 재생지로 개발한 신규 패키지를 선보여 연간 46만장 이상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840kg의 나무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브랜드를 적극 유치하고 식물재배 키트, 에코 백, 텀블러 등의 사은품을 제공해 친환경 소비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수도 시설을 갖춰 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점포 내 후방 시설에 고효율 LED등을 설치해 전기 사용량을 절감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4년 유통업계 최초 환경 캠페인인 '그린 롯데(GREEN LOTTE)'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을 ESG 원년으로 선포하고 체계적인



재생지에 콩기름으로 인쇄한 친환경 쇼핑백.



리얼스마켓에서 열린 플로깅 이벤트.

〈롯데백화점 제공〉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 캠페인 '리얼스(RE: EARTH)'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ESG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 활동인 플로깅(plogging: 쓰레기 줍기) 이벤트는 2022년 여름 강원도 양양과 제주도 월정리 해변을 시작

으로 지난해에는 경희궁 일대와 부산, 명동 거리, 성수동 등에서 진행됐다. 지난 2년 간 진행된 11회의 플로깅 활동을 통해 약 1만명의 고객들이 4만5천리터(L)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2년 추석부터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선용용 보랭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업계 최초로 운영 중이다. 보랭가방을 가까운 롯데백화점 행사장에 반납하면 5천점의 포인트를 제공해 올해 설까지 4만개 이상이 회수됐고 가방 등 폐기물은 업사이클링 컵으로 새롭게

탄생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한편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들이 환경보호 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은솔기자

수영복 편집숍 '멀티풀' 호남 최초 오픈

광주신세계, 스피도·졸린·씨폴리 등 해외브랜드 한자리에

㈜광주신세계가 2일 신관 지하 1층에 수영용품 편집숍 '멀티풀'을 호남 최초로 선보여 수영 동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멀티풀에서는 스피도(speedo), 졸린(JOLYN), 씨폴리(SEAFOLLY) 등 다양한 해외브랜드 상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스피도(speedo)는 1928년 호주에서 탄생한 글로벌 1위 수영복 브랜드로 국제 수영대회에서 선수들을 후원해 인지도가 높고 기능성도 인정 받고 있다. 매장에서는 선수용 수경과 수모인 스피도 레이싱키트를 50개 한정으로 20% 할인 판매한다. 졸린(JOLYN)은 미국 캘리포니아 브랜드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화려한 색상과 편안한 착용감을 갖춘 졸린에서는 수영복 15%, 수모 10% 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14일까지 진

행한다. 1975년부터 호주 여성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수영복 브랜드 씨폴리(SEAFOLLY)는 수영 중심의 Core Swim, 패션 중심의 Fashion Swim, 휴양지에서 입기 좋은 Fashion Overswim의 세 가지 제품을 출시



한다. 아외나 실내 수영 시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오는 30일까지 전 품목 20%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수영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올해 유행할 수영복과 비치웨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홈런 같은 초특가 혜택... 오프라인서 쏟아진다

이마트, 5-7일 먹거리·생필품 50% 할인

신세계그룹의 상반기 최대 규모 행사 '2024 랜더스데이'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행사에 이어 5-7일에는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쇼핑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연다. 이마트에서는 고물가 시대 생활비를 완벽하게 방어해 줄 초특가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판매한다. 행사 카드 결제 시 한우구이용 전 품목을 최대 50%, 수입 삼겹살·목심(100g)은 40% 할인해 판매한다. 인기 위스키 '산토리 가쿠빈(700ml)'과 '발레니 1 2년 더블우드(700ml)'는 10%, '리셀 리



저브 10년(750ml)'은 행사카드 결제 시 30% 저렴하다. 필수 식재료인 달걀, 쌀도 특가에 선보이며 봄철 비타민을 보충해 줄 딸기, 참외 등 과일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마트·해양수산부·완도군의 협력으

로 선보이는 활전복을 반값에, 6일 하루 동안은 고급 요리인 대계를 마리당 3만원대에 판매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도 7일까지 참외, 고구마, 사과, 무항생제 달걀 등 신선식품을 특가에 선보이고 냉동 피자·핫도그,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1+1에,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이색 상품들과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이마트24는 유니폼 안주 플래터, 유니폼 런치박스, 야구장 캘리포니아를, 그릴드 미트 버거, 수·씩 화장지 등 야구를 모티브로 한 상품을 출시했다. 15일까지 상품 5종 결제 시 이마트24 모바일 앱 바코드를 스캔하면 랜더스 유니폼, 모자, 사인볼 등 굿즈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정은솔기자

광주 롯데백, 4월의 탄생석 '다이아몬드' 특별 기획전

본격적인 웨딩 시즌을 맞아 다이아몬드 상품이 예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일 "오는 30일까지 2층 루엔터 매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다이아몬드 특별기획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반지·귀걸이·목걸이 등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GIA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다이아몬드 감정원)

다이아몬드 제품 구매 시 동일한 사이즈의 랩 다이아몬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골든듀 매장에서는 오는 21일까지 다이아몬드 나석 등 다양한 다이아몬드 제품을 5-1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정은솔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